Korean Booster

# Podcast Chingu

## Ep 04. 전라도 사투리, 궁금해?

| | |
|---|---|
| **Listen to our Podcast** | Spotify - Ep 04. 전라도 사투리, 궁금해? |
| **Get your Script & Study Pack** | https://koreanbooster.com/blog/koreanbooster-podcast-ep4 |
| **Book your Lesson Here** | https://koreanbooster.com/koreanbooster-booking-page/ |

****Read with time stamps here. (On the right side bar, click "More" - "Show Time stamps")**

안녕, 얘들아! 오늘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돌아온 **Korean Booster Chingu** 가람쌤이야. 얘들아, 너네 내가 전라도 출신인 거 알고 있어? 나는 전라도에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사투리를 되게 강하게 쓰는 편이야. 그래서 오늘은 내 사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겸 내가 사투리를 쓸 때 어떤 말투가 나오는지 좀 보여줄게. 아니, 들려줄게.

먼저, 전라도 사투리의 특징은 억양이 다른 사투리보다는 억양이 좀 부드럽고 노래하듯이 리드미컬한 편이야. 그래서 말을 할 때 음의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하게 들리는 게 특징이야. 예를 들어서, 서울 표준어로는 "밥 먹었어?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라도 내 지역에서는 "밥 먹었냐?" 들었어? "밥 먹었냐?" 약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지?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는 다른 사투리보다 조금 부드럽고 조금 더 느리면서 약간의 노래하는 느낌이야.

내가 전라도에서만 쓰이거나 또 자주 쓰이는 독창적인 단어들을 소개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이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 **거시기**. 거시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그 빈틈을 채울 때 쓰는 단어야. 예를 들어서, "걔 이름이 뭐였더라? 거시기 있잖아. 거기 슈퍼 딸. 거시기 이름 뭐였더라?" 이렇게 또 많이 쓰거든. 진짜 만능 단어야. 이름이 안 떠오를 때 무조건 써.

그 다음 단어는 **시방**. 조심해. 시발 아니야. 시방이야. 시방은 지금을 뜻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뭐 해?" 라는 문장은 "너 시방 지금 뭣허냐(뭐더냐)?" 이렇게 표현해. 싸우는 것 같지? 아니야. "시방 지금 뭣허냐(뭐더냐)?"는 "너 지금 뭐하니?" 라는 뜻이야. 확실히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좀 싸우는 말투이기도 하지.

그 다음은 내가 진짜 자주 쓰는 감탄사인데 **아따**랑 **오메**가 있어. **아따**는 특히 답답할 때, 짜증날 때 그때 많이 쓰거든. 예를 들어서, "아 진짜 오래 걸리네". 이거를 "아따 징하게 오래 걸리네". 이렇게. **오메**는 또 깜짝 놀랐을 때 쓰는 감탄사야. 예를 들어서, "어머 깜짝아." 이렇게 하는 표현은 전라도에서는 "오메 깜짝이야." 이렇게 말해. "오메. 오메." 그리고 또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징하게, 징하다, 허벌라다, 허벌라게** 이건데, 아주 매우, 굉장히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야. 예를 들어서, “와 쟤 진짜 예쁘다.” 이거를 우리는 “징하게 예쁘네. 허벌라게 예쁘네.” 이렇게 말하고 맛있을 때도 “징하게 맛있다잉. 허벌라게 맛있다잉.” 이렇게 말해.

근데 너네 들으면 내가 계속 잉잉 이렇게 문장을 끝내지? 전라도 사투리는 문장 끝에 **“~잉“ “~제“**라는 표현을 붙여서 약간 좀 정교한 느낌을 주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허벌라게 맛있다잉 이렇게 했지? 그 끝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말해야 돼. 맛있다잉. 밥 먹었어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많이 붙이는 게 제. 제 라는 표현을 또 끝에 많이 쓰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확신에 가득 찼을 때. 그때 많이 쓰는 표현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대신에 “그라제.” 이렇게 많이 말하고. 그리고 또 **“당께.란께.”** 이것도 문장 끝에 진짜 많이 붙이는데 약간 내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아니면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랬당께?” “진짜라니까?” 이것도 “진짜랑께?” 이런 식으로 말해. 이것뿐만 아니라, ~쇼. 뭐, 뭐 하시오. 이런 **“~쇼, 시오.”** 엔딩도 많이 붙이는데 약간 부드럽게 명령을 하거나, 이거를 해보라고 권유할 때 많이 써. 예를 들어서, “이리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대신에, “아따~ 이리 오쇼.”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야. 굉장히 우리는 친절하게 말하는 거야. “이리 오쇼.”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것 좀 드셔보쇼. 먹어보쇼.”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문장 끝에 자주 붙이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혹시 너네가 전라도 사투리에 관심이 많다면, 내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추천을 해줄게. 먼저 드라마로는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 광주하면 또 그 아픈 역사가 있잖아. 5.18 민주항쟁.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인데,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5월의 청춘이야. 눈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휴지를 챙겨서 보는 걸 추천해.

그 다음 유명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이게 시리즈로 있는데, 응답하라 1997, 1994, 1988 있는데 거의 모든 시리즈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1994편이 전라도 사투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거든. 왜냐면 이 드라마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서울의 하숙집에 모여서 생활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광주에서 올라온 학생, 경상도에서 올라온 학생 있을 거 아니야. 서로 같이 생활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라도 뿐만 아니라 경상도 등 다양한 사투리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 꼭 보는 것을 추천해.

그 다음에 영화 두 개를 또 추천해 줄 건데, 첫 번째가 **택시 운전사**. 이것도 5월의 청춘처럼 5.18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거든. 이거는 실화야. 서울의 택시 운전 기사가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갔다가 탈출하면서 벌어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 이것도 진짜 재밌으니까 꼭 봐봐.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대박이야.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웃긴 영화. **위험한 상견례**. 이거는 옛날 영화인데 내가 진짜 추천하는 게 옛날에는 전라도랑 경상도는 사이가 안 좋았어. 왜냐면 정치적으로 전라도는 진보고 경상도는 보수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의 남자 여자는 서로 결혼을 못했어. 가족들이 반대를 했거든. 아니 진짜야. 진짜 있었어. 이 영화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전라도 출신의 남자와 경상도 출신의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 어떡해. 거짓말 해야지. 그래서 남자가 전라도 출신인 걸 숨기고 경상도 출신인 척하면서 결혼을 하거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야. 더 말하면 스포일러 될 거 같으니까 너네들이 한번 봐봐. 아직까지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 문제없어.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도 내가 사투리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사투리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 아따. 내 팟캐스트 들어줘서 고맙다잉. 내가 스크립트랑 스토리팩을 허벌라게 열심히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꼭 내 웹사이트 들어가서 봐봐잉. 꼭 다운로드하고잉. 다운로드 받으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아따 난 이제 가야겠다. 다음에 또 보자잉.

안녕.

뽕!